구미래의 새롭게 만나는 불교의례 ⑧ 관욕 (上)



▶한줄요약
한국불교의 경우 부처님오신날의 탄생불이 아닌 일상적 관욕은 의례 속에서 상징적으로 전승돼 왔다.

'찬탄·경배' 담아 탄생불 씻기는 정화의식

의례에서 '물'이 지닌 상징성

종교의례에서 물이 지닌 상징성은 매우 크다. 생명의 근원이자 모든 걸 깨끗이 씻어주는 물의 정화력은 신의 영역에 속하는 신성성이라 할 만하다. 따라서 물은 초월적 존재에게 올리는 공물(供物)인 동시에 부정(不淨)을 씻는 필수요소로 여겨졌다.

의례에 쓰는 물을 맑고 깨끗하다는 뜻에서 '청수·정수'라 하고, 이른 새벽 샘에서 길었다는 뜻에서 정화수(井華水)라고도 부른다. '물 한 그릇 떠 놓고 식 올린다'는 말이 있듯이, 신랑·신부가 서로의 머리를 틀어주면서 치렀던 가난한 이들이 전통 혼례에서도 빼놓지 않는 것은 한 그릇의 정화수였다. 비록 제대로 갖추어 치르지는 못해도 맑은 물로써 천지신명에게 신성한 혼인을 약속하는 것이다.

아울러 초월적 존재와 만나기 위해서는 공간의 삿된 기운을 없애고, 동참자들의 심신 또한 정결해야 한다. 따라서 의례 전에 목욕재계와 금기를 지켜 심신을 정화하는 한편, 의례공간의 사방에 물을 뿌려 부정한 기운을 물리치게 된다. 이처럼 물은 세속의 오염을 소거함으로써 신성한 시공간으로 들어서게 해줌과 동시에, 신에게 바치는 신성하고 깨끗한 공물로 자리매김해왔다.

그런가 하면 인간을 대상으로 한 일련의 '씻김의례'에 주목해볼 수 있다. 이러한 행위는 새로운 탄생과 같은 종교적 상징성을 지녀, 물의 정화력이 극대화된 경우라 하겠다. '씻김'이라는 과정이 중요한 통과의례의 구실을 하여 이전과 다른 지위·상태·자격을 얻어 거듭나게 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침례교에서는 몸을 물속에 잠그는 침례(浸禮) 의식을 통해 이전의 죄를 모두 장사지내고 영적으로 다시 소생하는 의미를 부여한다. 기독교에서도 이마에 물을 뿌려 교인으로 거듭남을 상징하는 세례(洗禮)가 일상화되어 있다. 침례·세례가 산 자를 주 대상으로 한다면, 불교의 천도재와 무속의 씻김굿에서는 영혼을 대상으로 관념적인 씻김의례를 행한다.

불교에서는 이처럼 물로써 대상을 정화하는 의례를 '관욕(灌浴)'이라 부른다. '관욕'을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물을 부어 목욕시킨다'는 뜻을 지녔다. 천도재에서 영가의 업을 정화하는 의식에서부터, 부처님오신날 청수로 탄생불을 씻어주는 관불(灌佛)·욕불(浴佛)에 이르기까지 통칭하는 개념이다.

그런데 한국불교에서는 부처님오신날의 관욕을 제외하면, 불상이나 산 자를 대상으로 한 관욕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실제 물을 뿌리는 행위의 관욕이 드물다는 뜻이다. 이에 비해 관념적·상징적 관욕은 다른 나라에 비해 발달했는데, 이 경우에도 하위(下位)의 망자를 주 대상으로 하고 상위(上位)의 관욕은 드문 편이다. 따라서 한국불교의 경우 실제적 관욕보다 관념적 관욕이 발달했고, 성(聖)의 존재보다 속(俗)의 존재, 산 자보다 망자를 대상으로 삼는 특징을 지녔음을 알 수 있다.

탄생설화의 주요 모티프

부처님오신날에 탄생불을 씻어주듯이, 신성 존재를 향한 관욕은 '찬탄과 경배'로 행하는 정화의식이다. 고대인도의 브라만교에서는 신상(神像)을 물로 정갈히 하는 의례를 주기적으로 행하였다. 〈대보적경(大寶積經)〉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 나온다.

사위성(舍衛城) 파사닉 왕의 딸인 8세의 무구시(無垢施) 공주가, 2월 8일 비성(沸星)이 나타나는 날에 5백의 브라만과 함께 물항아리를 들고 성 밖으로 나가 천상(天像)을 씻겼다는 것이다. 그 뒤의 전개를 보면, 브라만들이 성 밖에 있던 비구들과 토론이 벌어지면서 공주와 브라만은 모두 비구들의 설법에 감화되어 부처님께 귀의했다고 한다.

불교서 수용·전승된 관욕
탄생불 대상으로한 출발점
점차 일상화된 욕불로 확대



부처님오신날의 탄생불 관욕 장면.



천상에서 아홉 용이 물을 뿜어 탄생불을 씻어주는 장면. 통도사 팔상도 중 '비람강생상' 부분도.

이러한 정화의식은 보편적 상징성을 지녀, 불교의 성립과 함께 불상(佛像)을 씻어주는 관욕 개념이 자연스레 자리 잡은 것으로 보인다. 불상을 조성하기 시작한 시기는 1~2세기이니, 불멸(佛滅) 후 불상을 조성하기 전까지의 관욕은 실제 의식행위가 아니라 탄생설화 속에서 갓 태어난 아기 부처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아기가 태어나면 몸을 닦고 정결하게 보호하듯이 탄생불을 씻기는 것은 매우 적합한 정화의식이기 때문이다.

〈보요경(普曜經)〉에서는 "싯다르타가 탄생했을 때 제석과 범왕이 홀연히 내려와 갖가지 향수로 목욕시켰고 아홉 마리 용은 하늘에서 향수를 뿜어 목욕시켰다"고 하였고, 〈과거현재인과경〉에도 "난타 용왕과 우바난타 용왕이 공중에서 깨끗한 물을 뿜어 한 줄기는 따스하게 하고 한 줄기는 시원하게 하여 태자의 몸에 부었다"고 하였다.

이 밖에도 부처님의 생애를 다룬 경전과 그림에는 룸비니동산에서 갓 태어난 아기 부처를 천상의 신과 용이 물을 뿌려 씻어주는 내용이 빠짐없이 등장한다. 이러한 관욕은, 연꽃이 피어나고 꽃비가 내리며 아름다운 음악이 울려 퍼지는 것처럼 부처님의 탄생을 축복하고 찬탄하는 신이(神異) 현상의 주요한 모티프이기도 하다. 불교에서 수용·전승된 관욕은 탄생불을 대상으로 한 것이 출발점이었고, 점차 일상화된 욕불로 확대 전승된 셈이다.

〈욕불공덕경〉 등에는 욕불을 행하는 공덕과 함께 구체적인 방법도 상세히 다루었다. 그 가운데 몇 가지를 살펴보면, 불상을 목욕시킬 때 갖가지 재료를 갈아 향수를 만들고, 이때 쓰는 물은 맑게 걸러서 작은 벌레라도 다치지 않도록 하였다. 목욕한 물은 자신의 정수리에 발라 길상수(吉祥水)로 삼고 나머지 물은 깨끗한 곳에 버려서 밟지 않게 하며, 모든 향을 태워서 주변이 향기롭게 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욕불은 공덕이 큰 예불행위가 되어 남방불교는 물론, 초기 중국불교에서도 활발하게 행해졌다. 고대 중국의 기록인 〈삼국지오서유요전(三國志吳書劉繇傳)〉에 따르면, 욕불을 할 때면 많은 음식을 차려 이를 위한 자리가 십 리나 이어졌고, 구경꾼이 만여 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민간과 어우러진 축제로 정착하면서 석가탄신일을 곧 '욕불일'이라 부르게 되었다.

남방불교에서는 석가탄신일과 명절만이 아니라 일상적 욕불 또한 활성화되어 있다. 이를테면 미얀마 만달레이에 있는 마하무니 사원에는 매일 새벽이면 부처님의 '세안 의식'을 보기 위해 많은 이들이 찾아든다. 스크린을 통해 세안 장면을 지켜보는 가운데 예불을 올리고, 의식이 끝나면 길게 줄을 서서 부처님의 얼굴을 닦은 물을 담아간다. 부처님의 가피가 내린 길상수로 여겨 아픈 곳에 바르고, 장사를 하는 이는 판매하는 물건에 뿌리기도 하는 것이다.

삼국시대부터 이어진 '탄생불 관욕'

우리나라에서도 불교가 수용된 이래 석가탄신일의 주요 의식으로 관욕을 행하였다. 일본 원흥사(元興寺)의 자료를 보면 538년 2월에 백제 성왕이 태자상(太子像)과 관욕기(灌浴器) 등을 보냈다는 기록이 전하고, 최치원이 지은 지증대사(智證大師) 비문에도 "대사는 잉태한 지 4백여 일이 지난 관불회(灌佛會)의 아침에 태어났다"는 표현이 등장한다.

1525년에 간행된 〈용재총화〉에는 "12월 8일의 욕불 때면 다과와 떡 등을 다투어 시주하여 부처님께 공양하고 스님을 대접했다"고 기록하였다. 이처럼 고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부처님의 일생과 관련된 재일에 관욕이 널리 행해졌고, 이를 욕불회·관불회 등이라 불렀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우리의 초파일 풍습은 연등(燃燈)에 초점을 두면서 관욕은 법요식 등에 행하여, 대중이 탄생불에 물을 끼얹으며 참여하는 풍습이 활성화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눈에 잘 띄지 않는다. 이에 '한동안 단절되었다가 1980년대에 재등장했다'는 표현이 나오기도 하지만, 근대에 들어와서도 욕불은 꾸준히 행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09년 황성신문에 '욕불절'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매일신보에서는 초파일인 1915년 5월 21일 자에 "매년 각 사찰에서 성대한 관불회가 있음은 물론이거니와 금년에도 각처 사찰에서 전례를 따라 부처의 탄생을 기념하는 회가 있다"고 하였다. 특히 경성부의 초파일 준비상황을 소개한 1928년 매일신보 기사에서는 조선은행 앞, 동아일보사 앞 광장, 장충단의 세 곳에 연화대를 마련해 불상을 모시고 각각 하루 세 차례씩 장엄한 관불식을 거행한다고 적었다.

부처님오신날의 관욕은 '지천지지(指天指地)'의 탄생불을 모시게 마련이다. 이 세상에 갓 태어난 아기 부처가 하늘과 땅을 가리키며 '천상천하 유아독존(天上天下 唯我獨尊)'의 사자후를 하는 장면을 재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꽃으로 아름답게 장식한 화반(花盤)에 탄생불을 모시고 청정수를 떠서 불상의 머리에 붓는 의식을 이어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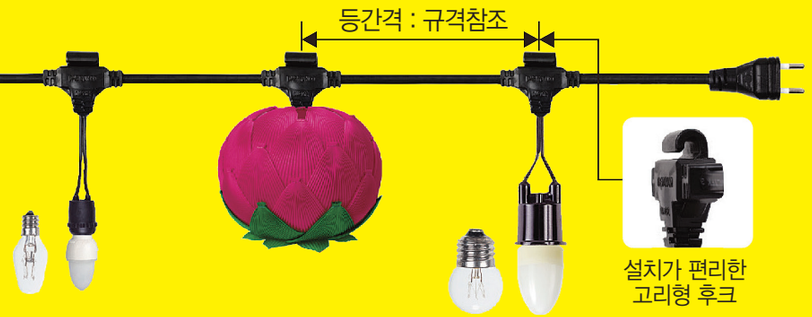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불상을 대상으로 한 관욕은 '부처님오신날의 탄생불'이 짝을 이루며, 그 외의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불상을 향한 실제적 관욕 외에, 다른 한편으로는 수륙재·예수재 등에서 상위의 존재인 부처님을 대상으로 한 관념적 관욕이 전승되고 있다. 이때의 관욕은 위패(位牌) 또는 위목(位目)을 모시고 행하는 가상의 씻김의례를 말한다. 따라서 한국불교의 경우 '부처님오신날의 탄생불'이 아닌 일상적 관욕은 의례 속에서 상징적으로 전승되어온 셈이다.

그런데 의식문에 상위·중위·하위의 관욕을 명시하고 있더라도 실제 의례에서는 하위의 존재만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많고, 그 이유에 대한 해석과 담론도 다양하다. 이에 다음 호에서는 수륙재 등의 천도재를 중심으로, 삼단(三壇)의 존재를 향한 관욕의 전승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불교민속연구소 소장〉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법당 전선시공 전문
승하강 장치시공(신형)



공단연등(고리용)



노랑(오렌지) 진분홍 백색 연분홍 금색

전선간격
22cm, 25cm, 28cm, 30cm, 40cm, 50cm,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LED태양광 솔라
(국산정품)



LED전구 국산인증
(서울반도체 정품)



고추구 12E 인지구 26E

도량(만월등)조립식 프레임(간편한 설치 및 높낮이 조절)





안전인증 ISO9001 ISO1400 특허청

정직과 신뢰의 불자기업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986-0277~8, 02)2266-2634
032)582-6235~6, 02)2263-2638
문의핸드폰 010-3630-7092
본사·공장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